

8월의 편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계속되는 불볕 더위로 서울에 사는 우리보다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다. 섭씨 40도에 육박한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무슨 징조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에 한 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그 더운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면서 한국의 시원한 일기를 자랑했는데 상황은 아주 달라졌다. 필리핀도 우리처럼 무더운 것 같지는 않다. 제자훈련원에서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 때는 하나의 꿈이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어 고경진 선교사 가정을 보낸 지 벌써 햇수로 6년째를 맞게 된다. 이제는 필리핀 제자훈련을 통하여 제자훈련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필리핀 땅에 떨어져 2년 만에 영어로 제자훈련을 무식하게 시작하였던 것 같다. 제일 어려운 사역이 교제시간이다. 삶의 깊은 이야기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눈물로써 털어놓는데 짧은 영어실력으로 전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강행한 셈이다. 병원의 의사 같으면 오진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 하면 사역의 중심이 말씀인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의 재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전적

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놀란 것은 그들의 문화로 불가능했지만 통회 자복이 터졌다. 그들은 변했다. 필리핀의 젊은이들은 우리 보다 표현이 자유스럽고 솔직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은 영어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였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일이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게 된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교훈과는 정반대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려운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다. 쉽게 말씀하였다. 많은 내용의 말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이다. 이것은 2000년 전 처음 제1기 제자훈련에서의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아무리 제자훈련 받아도 자꾸만 어른이 되고 있다는 데 고민이 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없는 것을 있다고 못한다. 정직하다. 사실대로 말한다. 그리고 머리 굴리지 못한다. 그리고 타산적이지 못한다. 자기가 당장 손해나도 자기 방어를 못한다. 그리고 겸손하다.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치원에만 가도 어른이 되려고 한다. 제자사역의 생

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분이 자기 성격을 진단하면서 자기는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소탈한 편인데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즉 자유함의 장점은 무계획적이고 비조직적인 단점이 된다"라고 하였다. 요즘처럼 경영학이 발달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에서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오늘의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자기 계획을 하나님님이 도와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하나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려는 생각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협조자로 모시려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삼상 2:7)"라고 말씀하였다. 우리의 계획과 조직이 무의식중에 주님의 주권(Lord Ship)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 제자훈련 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억할 뿐이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를 삼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기를 바란다. 무더운 여름 주인을 땀나게 하지 말고 시원케 하는 섬김의 삶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

오세철 (목사 · 전 제자훈련원장)

8월의 편지 / 오세철 · 1

- 영혼의 양식 아브라함의 믿음과 훈련/ 송신호 · 2
- 선교정보 내가 사랑하는 나라 코리아(2) / 권삼승 · 3
- 이달의 메시지 성령이 임하시면 / 염상만 · 4
- 신앙 에세이 받은 사람, 전하는 사람 / 김온양 · 5
- 훈련보고 · 6~7
- 서신 / 이현주 · 7
- 농촌강단 작품 생산과 유기농업(2) / 최병철 · 8

쌀 및 기초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농촌 목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 및 한국교회를 향한 제안 ③ /

- 손원익 · 9
- 선교지에서 온 편지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
- 고경진 선교사 · 10
- 1학기를 돌아보며, 제1기 2학기 사역자 학교 안내 · 11
- 세션회 소식 · 12
- 선교훈련생 모집안내, 헌금자 명단 · 12

말씀과 교제

102호 제자훈련원

● ● 영혼의 양식 ● ●

아브라함의 믿음과 훈련

- 창세기 강해 · 열아홉 -
(창세기 12:1~20)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였다.

1)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었다(1절).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환경,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까지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이다. 믿음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 본 경험이었다. 그 곳으로 가는 길도 몰랐다(히 11:8). 그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느 곳이 가나안 땅인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지시를 받아야 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7절에 확증해 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앞으로 나아갔다(4절). 아브라함은 세겟 땅 모레에 도착하였다. ‘세겟’은 ‘어깨’라는 말로서 ‘능력’을 의미하며, ‘모레’는 ‘교사’라는 뜻으로 ‘지식, 지혜’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시작하였다.

2) 육신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없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는 애굽에서 살고자 하여 그 곳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는 육적 자아를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에 살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옛 성품이 육신이다. 로마서 7:18에는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로마서 8:6~8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는 육신의 모습을 보자

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지시 없이 떠났다.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애굽 땅에서 살기 위해 내려갔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정탐꾼을 보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절하고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하였다. 이 모두가 육의 모습이다.

② 하나님의 주권적 훈련을 스스로 피하려 하였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믿고 기근의 땅에서 훈련에 합격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환경을 피하였다. 창세기 26:1 이하에 보면 이삭은 기근의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욥기 23:10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였다.

기근은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훈련이었다. 믿음을 떠나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③ 이기적이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다.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를 인하여 안전하게 목숨을 보존하려 하였다. 육적 자아는 철저히 이기적이다. 육신은 하나님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한다.

3) 육신대로 행한 결과

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

비집해쳤다. 담대함을 잃었다. 능력도 지혜도 잃어버렸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② 부끄러움과 실패를 당했다.

아내를 빼앗겼다.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가 주는 것을 받아 부요하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바로가 준 것이 많을수록 부끄러움이요, 고통이다. 더 큰 실패이다.

③ 바로에게 책망을 받았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믿는 자가 육신대로 살면 세상에서 불신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책망하게 된다.

4)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① 언약함을 알게 하셨다.

②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내를 구출해 주셨다.

③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④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삶의 보장이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

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실패요 부끄러움뿐임을 알게 되었다.

⑥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피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사탄을 기쁘게 하지 말라.

사탄에게 속지 말라. 어떤 합리적인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하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훈련에 합격하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제자가 되자!

송신호(목사, 본회 제자훈련원장)



내가 사랑하는 나라 코리아 (2)

— 한국 농촌의 현황 —

얼마 전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해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세계적으로 도시선교가 성공한 예는 세계를 통틀어 두 곳뿐인데 그 곳은 뉴욕의 동북부 지역과 한국의 도시교회라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점차 도시선교가 힘을 얻고 있고, 전략이 개발되고 있지만 한국의 도시교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쪼든 농촌교회의 덕을 보고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농현상으로 농촌을 떠난 이들이 도시교회에 자동유입되어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는 농촌교회의 현황을 나누며 문제점을 알아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대도시로 갈수록 기독교인의 인구비율은 높다는 사실이며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갈수록 인구비율은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농가 인구는 1967년 16,078,000명을 고비로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1992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90년 말 대비 약 100만 명이 감소한 5,707,000명으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5%로 낮아지게 되었다. 1970년의 농가인구가 14,421,730명이던 것이 20년 후인 1990년에는 6,660,891명으로 5년에 200만 명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92년 말에는 2년 만에 100만 명이 감소하여 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2000년경의 우리 나라 농가인구는 250~350만 명 정도로 5.3~7.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가가구수도 1970년도에 248만 가구이던 것이 1990년도에는 176만 7천 가구로 매년 3만 6천 호가 이농을 한 셈이나 1992년에는 164만 호로 2년 만에 12만 6천 호가 이농을 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연령별 인구분포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60세 이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늘어나는 것은 60세 이상의 인구임을 알 수 있어 노령화로 농업노동의 질적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을 알 수 있다(도표참조).

한응수 목사님에 의하면 88년 말 전체

농어촌 교회의 수는 16,500여 개인데 이중 약 반수가 미자립 교회라고 한다. 미자립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농촌 목회자의 94.2%가 10년을 넘지 않으며, 교회를 이동한 횟수는 4회 이상이 88%로 평균 2년이 못 됨을 알 수 있다. 경제사정, 교인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단기간의 잦은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농촌교역자들의 절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71.4%), 충분하다고 응답한 교역자는 6.1%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77%)의 농촌 교역자들은 적지 않는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약 절반의 목회자들은 부채를 갚을 방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는 5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목회자가 제자훈련 등 순수목회를 하고 있는 반면 절반 정도는 자립대책과 병행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목회자 중 33% 정도가 장기적 혹은 평생 농촌 목회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56% 이상의 목회자가 장차 도시로 옮길 것이라고 하여 평생 농촌목회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농촌교회는 가난한 농촌교인과 출석하는 20~30여 명의 교인들로 60% 이상의 교회가 보조금이 없이는 거의

의 교회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에서 농촌교회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연전 농촌교회 목회자 30여 명과 2박 3일 동안을 함께 하는 자리를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농촌교회의 실상을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

문이다.

그 때에 동역자들이 내놓은 방안은 목회자들이 먼저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목회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과 완고하고 고집센 농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선교보다는 간접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어떤 이는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의 통학을 도와 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마을의 장례나 잔치 등, 굶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기도 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이나 시골 노인들을 돕기 위한 노인정 사역 등 도시 목회자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고생들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머리숙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해도 모자라는 경비로 빚을 지는 농촌교회의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빛을 진 도시교회가 짐을 나누어 짐으로 해결해야 하며, 또 고향을 떠난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고향교회를 도우며 농촌인구의 6%에 달하는 농촌 신자들과 17,000여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농촌교회는 비로소 잃었던 웃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삼승(목사, 본회간사)

농가인구 및 호수

〈1992년 농협연감〉

연도별	전체인구(A)	농가인구(B)	B/A(%)	농가 가구 수
1970	31,435,000	14,421,730	45.9%	2,483,318
1980	38,124,000	10,826,748	28.9%	2,155,915
1990	43,499,674	6,660,891	15.3%	1,767,034
1992	43,890,042	5,707,000	13.3%	1,641,000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천명, 자료: 농협통계〉

연도별	농가인구	13세이하	14~19세	20~49세	50~59세	60세이상
1981	9,999	2,937	1,534	3,299	1,077	1,147
1987	7,771	1,712	1,164	2,515	1,161	1,219
1992	5,706	1,040	1,577	1,791	1,061	1,237

성령이 임하시면

(행 1:8)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며, 그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조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너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리라'는 선포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받은 권능은 다만 전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내적 변화의 총체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적 성화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증인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는 성화의 삶과 증인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다만 우리 영혼이 구원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데 쓰이고자 하심이었습니 다. 성경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2) 성령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의 세계도 알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판결)이 끝났습니다(요 3:18).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의 세계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 슬픔과 한숨과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은

지옥의 실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당할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세상의 온갖 근심걱정과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짓눌린 어둠의 세력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간절한 호소가 있으며,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영혼의 갈증 때문에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영원한 생수를 고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밖의 세상은 허무와 고통과 강포의 소용돌이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세상이 내뿜는 열기와 독기에 함께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통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3)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 사랑의 강권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선 목자로 주님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의 방황과 고독과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친 고통을 아셨습니다. 어딘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양, 가시덤굴에 엉켜서 꼼짝달짝 못 하는 잃어버린 양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군사를 모으시면서 함께 따라나설 동역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없이 짓는 죄가 있다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죄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외면하는 죄요, 잃어버린 자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따라나서지 않은 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지불하신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사실에 대해 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은 바 되었다면 나는 결코 잠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절규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회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혼구원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으로 받아 내 삶에서 그분의 사랑이 넘치게 합시다.

(4)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살게 합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평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안에게 받은 한 므나를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파묻은 악한 총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싫은 소리 듣거나 귀찮은 일 당하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전도만 고집하면서 평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 아닌 차선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전하고 깨우치지 아니하면 …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 3:18)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히 여기지 말고 증인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염상만(동심침례교회 목사, 본회 사역위원)

받은 사랑, 전하는 사랑

그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시는 사역과 가정에 모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은 원고청탁의 팩스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제 Q.T메모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간증삼아 7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3일간의 생활메모를 보내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세션회보에 실릴 글을 쓴다면, 제자훈련원과 관계 있는 내용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2년 8월에 제가 제자훈련원에 갔을 때를 기억하며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7월 5일(화)

잘 때마다 편한 잠을 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오늘은 놀란 듯이 잠을 깨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꿈자리가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식은 땀으로 속옷이 젖어 있을 정도였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집에는 보석이와 예본이만 있었다. 아내는 교장선생님을 위해 다른 학부형들과 식사하러 나갔다고 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보석이와 떠듬거리며 말하는 두 살짜리 예본이와 모처럼 통화를 하고나니 악몽 때문에 걱정되던 마음이 꽤나 안심되었다. 그래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며 기도를 하다가 다 밝아서야 깜빡 잠이 들었다.

마침 오전에 아내의 편지를 받았다. 모처럼 반가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아내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문제를 통찰해 가는 내용들이 있었기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어렸을 때, 나쁜 꿈이라도 꾸면 꿈은 반대라며 나를 위로해 주시던 할머니의 말씀처럼 어젯밤의 악몽은, 과거와는 다른내용의 아내 편지를 받기 위한 꿈이었을 거라고 억지해석을 붙여 보았다.

오늘은 틈이 날 때마다 아내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

렸다. 기분 좋은 하루였다.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밤 12시가 넘기를 지루하게 기다렸다.

이삼일 동안 잠이 부족하여 몹시 피곤했지만 드디어 12시 30분에 모처럼 부푼 마음으로 아내와 통화를 했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박살난 유리그릇의 파편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상상과는 달리 아내는 착 가라앉고 담담한 목소리로 시작하여 급기야는 큰소리로 덤벼들었고 울기까지 했다.

아내는 엇그제 내가 보낸 Q.T 노트겸 생활메모를 받아보았으며 그 내용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시비를 따지며 적개심과 피해의식을 있는 대로 노출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킁킁한 사무실에 앉아 수화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거센 목소리를 들으며,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며 연신 고개를 흔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의 관심은 오직 자기자신의 자존심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울음 섞인 고함을 듣다 못해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다.

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곧이어 김종주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답답한 마음으로 아내를 부탁드렸다. 내 마음이 꺾이나 상했지만 그럴수록 나오는 것은 기도뿐, 아내의 감정 상태와 나를 향한 아내의 표현과는 관계 없이 나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권고하심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니던가? 문득 예배소서의 한 말씀이 상한 심정의 나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1~2)

이 말씀은 아내와 심한 갈등으로 마음이 너무 상해 있던 몇 년 전, 세션회 제자훈련원에서 Q.T 중 주님으로부터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받았던 말씀이었다. 당시에

받았던 은혜의 깨우침들이 성경책 여백에 깨알같이 메모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읽어 보며 그 때의 마음으로 나를 돌이켰다. 말씀으로 마음을 회복한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을 뒤적거리다 보니 벌써 새벽 5시.

7월 6일(수)

오늘 Q.T의 본문은 공교롭게 말과 혀에 관한 야고보서 3:1~12 말씀이었다. 어젯밤 아내와 나는 대화를 생각했다. 아내에게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좀더 잘 대해주지 못함을 회개하며, 내게 사랑이 부족했었음을 주님께 고백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그토록 말에 대한 경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혀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에 마음이 상했다.

‘오 주님, 나를 더욱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로로 삼아 아내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 주소서.’

오후에 추부길 집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그를 위로해야 하건만, 오히려 그는 나를 도울 생각으로 전화를 했던 모양이다. 함께 있다면, 말씀교제를 통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같이 찾아보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건만 ….

사랑하는 진폭만큼이나 서로 오고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큰가보다. 지난 초하루에 쓰다 만 편지를 마무리짓다. (계속)

김은양 (집사)

편집자 주 : 김은양 집사님은 92년 8월에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영국에서 어학 훈련을 계획하며 상당 심리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 ▶ 제204기 정기훈련 : '94. 5. 10~13 (참석자 20명, 사역자 11명)
- ▶ 제205기 정기훈련 : '94. 6. 14~17 (참석자 26명, 사역자 10명)
- ▶ 제9기 군종병 제자훈련 : '94. 6. 21~24
(참석자 군종병 73명, 군인 가족 19명, 사역자 9명)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 하노니 ...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8, 11)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이는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형편을 알고 기도함으로 바울사도의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사역자들이 은사를 받게 되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제자훈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204기 훈련

대중가수 2명이 들어와 1명은 첫체날 저녁에 도망갔고 1명은 끝까지 잘 받고 돌아갔습니다. 훈련에 들어왔다가 세 번씩이나 도망갔던 형제가 사귀고 있는 자매의 권유로 끝까지 잘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실되게 살고 싶다고 ...

오래 전에 훈련받은 자매가 훈련을 마치고 나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중학교 때 친구를 6년 동안 기도하며 편지를 수없이 해왔고 전화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해주시어 이번 훈련에 들어와 첫시간 부터 크게 은혜를 받고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 중에 있습니다.

제205기 훈련/제9기 군종병 제자훈련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상처 투성이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주벽과 구타를 견디지 못하여 집 나온 지 한 달이 된 자매가 친구의 인도로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남편이 바람나 집나간 지 7개월째인 자매, 교도소에서 출감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된 형제가 목사님의 인도로 들어오게 되었고, 어려서 4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이 들어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셨고 숨겨진 죄악들을 토설게 하셨습니다. 군종병 제자훈련은 기간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강습회 기간과 겹쳐서 사역자가 부족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알고 있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군종병들의 마음을 열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절반 정도는 군종병이 아닌데, 가라고 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제204기 정기훈련 (5월 10~13일)



제205기 정기훈련 (6월 14~17일)



제9기 군종병 제자훈련 (6월 21~24일)

있으니 오는 것은 줄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내용이 전해질 때에는 잠을 깨우시고 듣게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5기 때에는 돈을 계산하느라고 계속 숫자만 쓰고, 졸다가 3일 정도 보냈던 형제를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듣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잘 전해도 다른 생각하며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제자훈련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박장신(목사, 본회총무)

제3기 미국 제자훈련 보고

장소는 미국 서북부 시애틀 교외의 수양관이었습니다. 아담하고 깨끗하고 제자훈련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훈련생은 27명(초훈련 18명, 재훈련 2명, 조력자 4명, 사역자 3명)이었습니다. 6월 13~16일까지 3박 4일간 훈련을 하였는데 이 기간은 졸업시즌이었습니다. 자녀들 졸업식 관례로 오기로 약속하고 오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역자 중에 2명이 전 주간에 신학교 졸업을 하고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각종 집회가 있었고 또 준비되고 있었습니

다. <T.D(트레스 디아스), 레마 선교회 집회, 박00 목사 목회자 세미나, 개교회 부흥회>

제자훈련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귀신론에 빠진 사람, 레마 선교회에 빠진 사람. 안식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사위를 암으로 잃고 본인도 유방암으로 수술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에 대한 갈망이 컸고, 영적 혼란에서 참평안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전할 때 회개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도록 기도하며 빛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제자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걷힌 것 같다는 사람, 막힌 것이 뚫린 것 같다는 사람, 이제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 영적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람, 모두가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계속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찬양 - 심재일 전도사, 진행 - 김세찬 전도사, 상담 - 송영세 전도사 부부, 말씀 - 송신희 목사, 식당 - 선교교회 집사님 두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신희(목사, 제자 훈련원장)

목사님 보내 주신 서신 잘 받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영적중심의 수련회가 되어야 한다는 글도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 수련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 교단 청년 연합 수련회에 회비를 내고 참가신청을 한 동생이 직장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 대신 참석하게 된 1986년 8월 김해 장유 수양관에서의 제자훈련을 통하여 은혜 중에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날 파송예배시에 오세철 목사님께서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인쇄물을 받았었습니다) 적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도 심성이 곱고 착한 경숙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에 경숙이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사하며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 합니다.

때로는 반응이 없고, 확인을 할 수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회의적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전해야 한다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좇아 계속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니 경숙이를 제자훈련원으로 보내시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합니다.

작년 10월경 만났을 때, 2월 정기 제자훈련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2월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2월에서 3월로 미를 때에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또 한 달을 기다리면서 경숙이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환경을 열어 주실 것을

기도했었는데, 또 다른 방해거리로 막연히 다음으로 미를 때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을 잃어버린 듯하였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주님! 하고 기도할 때 5월 훈련을 받겠노라는 연락을 받고는 어렵게 결단을 하고 시간을 내어 가는데 꼭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오게 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를 동반하고서 3박 4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거듭 감사합니다. 사역하셨던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부채 문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로 친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여, 결국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로 바쁘신 중에라도 친구 경숙이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은혜받을 때 애쓰셨던 사역자들께서 사역을 그만 두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음을 잠시 잊어버리고 제자훈련을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사람은 바뀌어도 여전히 같은 은혜가 임함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기도의 힘과 성령충만함 가운데 7월 정기 훈련을 비롯한 예정된 여름의 모든 훈련에 탐과 수고의 결실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십시오.

1994. 7. 12.

이 현 주 드림.

작물생산과 유기농업(2)

영국 로잠스테트 시험농장의 릿셀 잡장은 토양 중의 지렁이의 수와 토비 시용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렁이의 수명은 1-2년이고 그 시체는 놀랄 만한 좋은 비료가 되며, 그 양은 300평에 약 100만 마리가 있는 비옥한 토양에서는 지렁이의 무게가 약 500kg이 된다고 한다. 지렁이의 똥은 최상의 부식이며 이것은 장관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혼합되어 매우 비료 가치가 높다. 코네티컷주 농사 시험장의 실험에 의하면 질소는 보통 다른 표토의 5배가 있으며 인산은 7배, 칼리는 11배, 마그네슘은 3배나 많다는 것이다.

월너의 재배 실험에서 지렁이의 있고 없는 데 따른 결과는 지렁이가 들어 있는 경우의 생산율은 연맥은 2.6%, 나뭇은 63.9%, 감자는 135.9%, 버찌는 140%, 완두는 300%, 유채는 733%라는 놀라운 결과였다. 그런데 화학비료가 이 유익한 지렁이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화학비료는 지렁이를 살해하는 강력한 해독물이다.

풍부하게 있는 미네랄을 흡수한 해초를 먹는 것, 이것이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초이다.

작물이 잘 성장하는 흙,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흙인데 뿌리가 흙속에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산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뿌리가 요구하고 있는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흙, 그것이 이상적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① PH는 5.5-6.3의 약산성, ② 비료분을 흡수하는 염기치환용량이 20-25로 높고 ③ 염기치환 용량의 50% 이상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또는 칼리 등으로 치환되어야 함 ④ 토양 100g 중에 칼슘이 200-300mg, 마그네슘은 25-30mg, 칼리가 15-20mg 포함될 것 ⑤ 유효인산이 10-20mg 포함 ⑥ 부식함량 3-4% ⑦ 경도의 팽연성이 15-18(표층)의 정도 ⑧ 토양의 3상 분포는 발이 고상(固相) 40, 기상(氣相) 30, 액상(液相) 30 ⑨ 미생물이 많고 유기물 분해가 좋고, 정화작용이 강할 것, 이것이 건전 토양의 조건이다.

야채밭이나 과수원의 흙은 공기와 접촉하고 있어서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가 산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연중 호기성 균이 활동하고 있다. 논은 온도가 높아지는 5,6월부터 물이 차서 공기와 흙이 차단되어 산소가 없어서 혐기성 미생물이 활동한다. 그러하여 작로는 점점 산소부족이 심해져서 청색의 환원층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물에 가까운 흙은 물에 녹은 산소와 표면에 생육한 조류에 의해 산소가 공급되어 산화상태가 유지되며, 부식이 적은 심토는 이처럼 논과 밭의 각기 다른 토양층이 생긴다.

밭의 토양은 바람의 피해를 받기 쉽고, 경사지는 비에 씻겨 표토가 유실되어 지력이 저하되기 쉽지만 논은 물에 잠겨 있어서 그런 피해가 없다. 또 논에는 많은 관개수를 쓰므로 그 물에 포함된 성분이 흙을 비옥하게 하지만, 밭은 성분함량이 적은 빗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빗물의 양분보급이 없다. 논에는 질소, 인산, 망간, 비소 등이 가용성이된다. 그래서 작물의 영양이 되는 것은 좋지만 비소와 같이 작물에 피해를 주기 쉽다. (카드뮴도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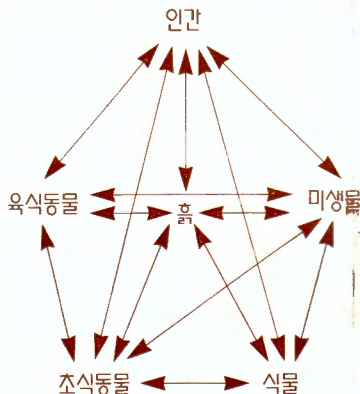
가. 논과 밭의 토양의 차이

(다음 호에 계속)

최병철(장로, 농촌사회개발원장)

• 논과 밭의 차이

	논	밭
흙속의 산소	적다	많다
침식	적다	많다
관개수에 의한 양분	많다	적다
PH	높다	낮다
미량 요소 결핍	적다	많다
질소 유효화	크다	적다
인산 유효화	크다	적다
질소의 안정상태	암모니움이온 NH_4^+	초산이온 NO_3^-
이오우의 형태	유화수소 또는 H_2S 유화이온 HS^-	초산이온 SO_4^{2-}
철의 형태	제1철 Fe^{+2}	제2철 Fe^{+3}
망간의 형태	아산화망간 Mn^{+2}	산화망간 Mn^{+3}
동의 형태	제1동 Cu^+	제2동 Cu^{+2}
비소의 형태	아비산 AsO_3^{3-}	비산 AsO_4^{3-}



2. 각종 토양의 기초지식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미네랄이 균형있게 포함된 비옥한 흙에서 생산된 건강한 작물을 먹어야만 한다. 흙 속에 포함된 각종 성분을 충분히 흡수한 농산물을 먹고 비옥한 토양에서 얻은 목초로 사육된 우유를 마시고 바닷물 속에

쌀 및 기초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농촌 목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 및 한국교회를 향한 제안 ③

(요 12:24, 사 60:1~4)

4. 농촌 목회의 대안 - 소망의 이유

위기에 처한 농촌교회에 있어서 대안은 농촌목회자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것은 농촌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곳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고 썩는 것이다.” 그는 민족과 농업, 농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며,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임받았음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그리고 섬겨야 한다.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 영적 지도력이 확립되며 교회 안에 미래의 일꾼을 키우며, 이들이 도회지로 진출하더라도 모교회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협동시키며, 각 계층별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함께 공동체로서 뭉치게 한다. 지역사회에서 칭송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그들 중에 반드시 믿는 자를 하나님은 주신다. 절박한 농촌 현실에서 농촌교회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라는 신앙고백 때문이다. 정착목회를 통하여 일생을 걸고 할 일은 “교회를 교회답게”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이요,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5. 농촌교회에서 이 대안이 실천되어 지기 위해서 한국교회(농촌교회와 함께 도시교회도)가 개혁되어야 할 제안.

① 한국교회에서 ‘목회성공’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성공은 무엇인가? 큰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생활비와 고급 승용차, 큰 재정을 사용하는 것, 높이

되고 유명해져서 전국적으로 바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성공을 위해서는 교인이 많아져야 한다. 이것이 성장의 전부요, 성공의 표준이 되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이웃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며, 개교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한다. 특히 목사는 목회성공을 원한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만 하고, 적은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러면 유능한 자요, 성공한 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 그러니 당연히 농촌교회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 농촌에 오래 있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요, 가난하고 힘들게 농촌에서 고생하는 목사는 실패자요, 못난 사람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한국교회에서 이 논리가 뒤바뀌지 않고는 농촌교회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농촌교회에 있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농촌에 정착목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에서 ‘역사의식’이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불의와 부조리를 나의 아픔으로 알고 변혁시켜 하나님의 의를 실현코자 하는 정신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에 소수의 기독교인이 개화운동, 민족 독립 운동의 주역으로 그 사명을 다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거대한 교세를 자랑하는 한국교회는 “가진 자 편에서 안일과 축복을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역사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같은 민족으로서 피해한 농촌과 농촌교회는 외면하고 해외선교에만 관심과 투자(농촌교회를 위한 투자는 1/10에도 미치지 못함)를 집중해 온 것이 그렇고, 쌀개방과 U.R. 협상에 대한 인식 역시 개방대세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만일 한국 교회들이 지금까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농업, 농촌 문제를 대하고 있었다면, 쌀개방이나 U.R. 타결은 한국교회에게 “날벼락”이 아니다. 왜

나 하면 수입 전면 개방을 대전제로 하고 출발하고 있는 신농정(6공의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에서 능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불합리한 농정에 대한 충고와 비판이 있었을 것이며, 나름대로 농촌, 농촌교회의 위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강단에서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설교가 행해졌을 것이며, 성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식탁이나 어린아이들의 도시락이 김치와 우리 전통 먹거리로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쌀개방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증거가 아닌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국내에 쌀이 남아돌므로 논농사는 축소되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재고미는 대부분 통일계쌀이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쌀 값으로 밀려들어오는 수입쌀로 인하여 우리의 논은 밭으로, 과수원으로, 축사로, 공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은 자기 가족들만 먹을 쌀농사만 짓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대부분의 영세농가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도시문제가 된다. 만일에 우리가 값싼 수입쌀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쌀이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왜 국제 쌀값이 쌀 줄 아닌가? 그것은 지금 국내에 농민이 있고, 논이 있고, 쌀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에게 쌀생산 기반이 붕괴된다면 세계 농산물 유통의 60%를 좌우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우리는 몇 배의 값을 주고 구걸하면서 쌀을 구입해야 될 것이다. 관세화 10년 유예, 1%의 쌀수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에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그 이상의 양이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다. 다음호에 손원익(목사, 사역 위원)

제15기 농촌선교연수

일 시 : 1994년 8월 8일~11일
장 소 : 양동 세션회농장
연락처 : 323-3347~9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삼 1:4)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 동안도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과 후원자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몇 개월간 소식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건강하며 은이는 2학년의 과정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제 아내는 쉬어야 할 일이 생겨서 은이와 함께 약 한 달간 방학을 한국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저는 요즘 내면으로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저에게 능욕을 지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두 달간은 땅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너무 비싼 것도 문제지만 개봉교회가 요구하는 교회부지, 유치원, 훈련센터 세 가지가 함께 되어질 수 있는 위치, 교통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개봉교회 윤창호 장로님께서 두 차례나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고통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 곳에 머물게 하신 주님께서 훈련장소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 자신이 이 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마련하고 센터를 마련하는 일은 나의 최선, 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

능욕을 지고 가는 것도 최대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주관자도 없이 마음을 모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가정 8명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며 또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이기를 중용하거나 인적관계가 아닌 성령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이 이 곳에 기도운동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며, 히브리서 11:38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 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곳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4개 교단인 한 장로교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합사업 정도가 아니라 각 교단 선교사들은 각시찰 지역에 소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회에서 주축하는 교사수련회 주강사로 4월 18~22일까지 약 110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에서 침식을 같이 하며 훈련에 참여했고, 5월 9~12일까지는 사역자들을 위한 지명제자훈련으로서 13명만 지명하여 저의 집에서 훈련을 가졌습니다. 스태프로는 알프레도 형제와 김병기 선교사, 그리고 저의 아내와 여러 사모님들께서 식당 운영에 참여하고, 음식도 제공해주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통은 장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곳의 선교사들 모임에 도움을 주고, 힘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측 선교부에서 이곳 대표로 세워 주셔서 그 일도 감당해야 하고, 올해는 제자훈련센터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고통과 기쁨들을 여러 지체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센터의 대지를 마련하는 일은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약 1,000평

정도의 대지인데 주인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영교회 부목사로 있는 박기주 목사(28기)가 통합측 현지선교회에 선교사 파송 추천을 의뢰해 왔습니다. 현지 선교회의 추천을 받아 선교부 인선위원회의 인선을 거치고 장신대에서 40일간 합숙훈련을 받는 일이 남아 있어 아직은 길이 멀고 불확실하지만 파송받게 되면 센터 건립을 앞두고 팀이 준비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 센터를 허락하시면 찬양사역자도 필요합니다. 1년, 2년 단기 사역으로 헌신할 수 있는 형제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7월과 8월에는 몇교회 청년들이 이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내와 은이는 6월 1일 KAL편으로 입국합니다. 저희 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9기 훈련을 마친 베쓰 자매가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저희 집에 머물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의 승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름사역을 앞두고 본부의 모든이들에게와 여러 후원하시는 교회와 지체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

- 훈련센터를 위한 대지구입을 위하여
- 성경연구와 기도모임을 위하여
- 여름의 제자훈련 사역(장소)을 위하여
- 제자훈련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 필요한 찬양사역자를 위하여
- 저의 가정의 건강과 영적충만을 위하여

1994. 5. 30.

필리핀에서 고경진 선교사 드림

1학기를 돌아보며 ...

먼저 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권의 노트가 한 학기를 말해 주는 듯
하다.

노트를 돌아보며 나에게 많은 변화를
보게 되었다. 먼저 눈이 열려짐을 느낀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가슴벅차게 온 나날들이
스쳐간다.

찢으신 후에 도로 낮게 하시며 치신 후
에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 징계가 두려
워 떨던 옛모습이 웃음과 함께 지나간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다짐도 했다. 4년 전에 165기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저 기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동정과 연민
이었는데 주님은 그걸 고치시기 원하셨다.

고통의 아픔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 세 번의 제자훈련이 새롭
게 새롭게 훈련되었다. 임옥순 선교사님
택에 가서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
고 얼마나 좁게 생각하고 좁게 보았던가
넓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많은 강
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의 다양하
심도 보았고, 특별히 교회사 강의가 너무
나 재미있었고 더 공부하고 싶었다. 교회
사를 배우며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교회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마
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울산바위에 가서
바위 위에서 자란 큰 소나무를 보며 하나
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저런 소나무를
살리신 이가 나의 아버지네 나 또한 보호하
고 계시니 두려울 게 없는 확실한 신뢰를
하게 되었다. 특별히 조규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짧은 말씀에 저녁에 혼자 들뜬에
나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눈을 들어 보는
말씀. 이 좋은 곳에서 묵상훈련을 하나
님께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욕심은 죄였
음을 깨닫게 하였고 아직도 묵상훈련이 되
지는 않지만 감사하다.

어려운 공동 생활을 은혜 중에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94. 6. 30. 김선주

세션회 선교 훈련원에서 한 학기를 마
감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린다. 나를 훈련받게 배려해 주신 세션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7개월을 맞이하는 5월 30일은 내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개혁이 시작되는 날
이기도 했다.

선교훈련원의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관심
이었으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이었다.

이 곳에서 아내와 함께 훈련받고 있지
는 않지만 한 주간 떨어져 있는 동안 철저
한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이 각자에게
있어 왔다.

아내에겐 외로움이었으나 그 가운데 하
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가고 있음
을 보았다.

나에겐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확신
에 찬 시작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침묵
이 그 확신도 무너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위하심을 본다.

이미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줄을 안다.

기존의 모든 사고를 내려놓고 방식과
스타일까지 비워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채워지고 생각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 남은 2학기의 바람이다.

1994. 6. 30.

훈련생 박양식

한국 그 단어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그
리고 나의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단
어였다. 왜냐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
각때문에 -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강한 부르심을 입었

다. 선교훈련을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구원의 확신도 갖
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3박 4
일간의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제자훈련시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영생도 소유
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둘째날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했다.

구원의 확신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
요하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
고, 내 마음도 육체적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일 아
침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다. 나는 항상 그의 식탁에 초대되어 그
와의 만나를 즐기곤 한다. 나의 즐거움을
매일 매일 나의 지체들과 나누고 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격려하고 위하
서 기도해 준 나의 형제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나의 한국 형제들은 나를 잘 알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도우며 사랑
하고 있다. 또한 한학기 동안 언어의 장벽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린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도
록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
며, 내 삶의 주인이며 인도자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훈련원생 롤란도 자오

제기 2학기 사역자 학교(L.T.C.)

- 훈련중점: 1 양육 및 제자와 훈련
2 사역자 훈련
3. 선교

기간 및 시간: 9월 ~ 11월(3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30분

등록금: 15만 원(저녁식사비 포함)

훈련장소: 세션회 서울사무실(T.323-3347~9)

입학자격: 정기 제자훈련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 훈련을 받고 돌기를 원하는 제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1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 세션회 소식 ✳

- 5월 5일 본회의 이사이신 이영덕 장로님과 기도회를 연세대에서 갖다.
- 5월 일 사무총장 김철우 장로 선교차 중국을 다녀오시다.
- 5월 10~13일 제204기 제자훈련이 시작되다.
- 5월 일 제2기 선교훈련생을 설악산 수련회를 다녀오다.
- 6월 1일 송선교사 어머니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셔서 미국으로 들어가셨다가 7월 14일경에 돌아오실 예정이다.
- 6월 1일 김동주 선교사(고경진 목사사모) 휴식 차 들어오시다.
- 6월 4일 세션회보 19호 약 5,000부를 발송하다.
- 6월 6-18일 송신희목사님 제자훈련 차 미국 다녀오시다.
- 6월 14일 17일 제205기 정기제자훈련을 실시하다.
- 6월 20-24일 제9기 군중봉 제자훈련을 3군단에서 실시하다.
- 6월 27일 제1기 사역자 학교(LTC) 종강식을 갖다.
- 6월 30일 제2기 선교훈련원 1학기 종강식을 갖다.
- 7월 19일 소말리아 조성덕 선교사 들어오시다.

* 8-9월 제자훈련일정 *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 | |
|--------------------------------------|-------------------------------------|
| 1. 연합 20기 제자훈련
8월 2-5일 교제를 가지고 함. | 5. 팔리관 14기 제자훈련
9월 5-8일(팔리관) |
| 2. 정기 207기 제자훈련
8월 2-5일(제자훈련원) | 6. 정기 209기 제자훈련
9월 13-16일(제자훈련원) |
| 3. 부산 12기 제자훈련
8월 9-12일(다대중앙교회) | 7. 군중 제10기 제자훈련
9월 26-30일(4박5일) |
| 4. 정기 208기 제자훈련
8월 16일-19일(제자훈련원) | |

훈련생 모집 안내(제3기)

3박 4일의 단기 제자훈련이 지난 18년 동안 2만여 명의 제자를 배출하여 왔고, 또 헌신된 일꾼을 양성하고자 시작된 선교훈련원이 이제 제 3기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1년 과정을 3개월 과정으로 축소하고, 국내 사역자 훈련을 해외선교 및 외국인 훈련과 분리하였습니다. 국내 사역자 훈련은 전도 및 양육훈련과 함께 제자 훈련에만 역점을 두고 훈련할 것입니다.

훈련과정 및 지원절차

훈련기간 : 199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3개월)

훈련방법 : 훈련원(양평소재)에 입주하여 공동생활로 훈련하며
외국인훈련생도 생활은 같이함.

(해외훈련은 국내훈련 수료후 특별전형으로 함)

특 전 : 은사에 따라 제자훈련 사역자로 일할 수 있으며,
해외 선교사 훈련 및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

지원자격 :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으로 훈련받기 원하는 자
(학력제한 없음).

전형방법 : 서류심사(이력서, 간증문 각 1통) 및 면접

접수마감 : 1994년 8월 25일 오후 5시(우편 접수도 가함)

면 접 : 1994년 8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사무소

문 의 처 : 서울사무소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45

Tel. (02) 323-3347~9

훈련원 (0338) 72-7242

사단법인 **세션회 선교 훈련원** 원장 송 신 호

■ 94년 5월 헌금자 명단

▶ 이사헌금

박근용, 최창근, 이홍순, 송신호, 권명관, 김종철, 노영일, 이옥희, 함정희

▶ 선교헌금

개봉교회, 가월교회, 동일교회, 사랑의 교회, 은평선교교회, 김경훈, 김권두, 김근배, 김미화, 김민정, 김순희, 김영숙, 김영옥, 김명준, 김재한, 김종천, 김희정, 김한영, 나일수, 박성기, 박성숙, 박선옥, 박정선, 박주영, 방영호, 신정란, 양문선, 안경숙, 오정태, 유희분, 윤유환, 이광복, 이도범, 이순자, 이재화, 이현주, 장기분, 장성희, 선호겨지씨회, 천운숙, 최명희, 허순강, 한준수, 현미경, 정상순, 이홍렬, 박영국, 박장신, 김병국, 정은영, 박혜자, 오민숙, 김은숙, 김정림, 신상보, 김경미, 박순남, 권유신, 이용훈, 윤희상, 안병일, 오재성, 명순애, 김자신, 임경숙, 이해란, 이순보, 강선숙, 정재찬, 최정훈, 김명훈, 강용수, 최선조, 조경하, 박문갑, 강승희, 노명근, 영락교회, 홍달천, 백혜자, 박종수, 박원규, 가리봉교회, 신동우, 우춘익, 홍경표, 최병칠, 김광덕, 예수전도단, 해선교회, 중부교회, 왕성교회, 왕성(5청년), 한우리교회, 한양은

▶ 해외선교헌금

개봉교회, 목양교회, 상심리교회, 상현교회, 양평교회, 주안고등부, 최도영, 흰돌교회, 성린교회 중·고등부, 은평선교교회, 성린교회 주일학교, 김미영, 김용자, 김지영, 방승신, 방윤순, 원미원, 유영란, 이인경, 홍수나, 이상순, 정운식, 이순이, 맹춘호, 사랑의교회, 정순임, 선교훈련원, 안경란, 동심침례교회, 전영국, 충은교회, 장광섬, 유해근, 톨란도, 빛의소리선교단

▶ 수양관 수리헌금

곽순자, 이현주, 장은주, 김관중, 신정란, 이심송, 무명

■ 94년 6월 헌금자 명단

▶ 이사헌금

석세일, 박형중, 최창근, 이홍순, 김철우, 최병칠 박근용, 송신호, 이재섭,

권명관, 노영일, 이옥희, 이우배, 함정희,

▶ 선교헌금

개봉교회, 가월교회, 동일교회, 한빛교회, 사랑의 교회, 은평선교교회, 엘리트기업, 권숙희, 김경훈, 김권두, 김단비, 김수경, 김순희, 김영숙, 김영옥, 김명준, 김재한, 김종천, 김한결, 김희철, 김희정, 김한영, 나일수, 박상대, 박성래, 박성숙, 박선옥, 박정선, 박주영, 방영호, 신정란, 유희진, 이돈칠, 이문세, 이순자, 이영희, 이은주, 이현주, 장기분, 장성희, 선호겨지씨회, 천운숙, 최명희, 최상숙, 최정훈, 허순강, 홍섭분, 한준수, 현미경, 정상순, 박장신, 정은영, 박혜자, 오민숙, 김은숙, 이상길, 문용식, 이석경, 조성운, 김경미, 권유신, 이용훈, 명순애, 신상호, 류경수, 권오승, 최은희, 나은숙, 임은아, 임진원, 윤미선, 이종현, 사승명, 김종옥, 박성철, 김태운, 박주현, 임대영, 박진화, 김희정, 김창용, 정효덕, 박선옥, 권삼승, 김현수, 김병규, 김명훈, 최정훈, 정재찬, 박문갑, 강용수, 조경하, 노명근, 영락교회, 박원규, 가리봉교회, 산돌중앙교회, 우춘익, 박종수, 조성복, 홍경표, 최병칠, 왕성(5청년), 해선교회, 왕성교회, 중부교회, 한우리교회, 이명남, 김경수, 한양은, 신장교회

▶ 해외선교헌금

구상호, 김미영, 김용자, 김지영, 박경복, 방승신, 방윤순, 신기오, 원미원, 유영란, 이인경, 조창권, 조영옥, 홍수나, 이상순, 이순이, 맹춘호, 김홍만, 개봉교회, 상심리교회, 양평교회, 주안교회, 주현교회, 장암교회, 최도영, 한창희, 흰돌교회, 유종철, 은평선교교회, 동심침례교회, 사랑의 교회, 성린교회, 정순임, 동현교회, 김영희, 전영국, 충은교회

▶ 수양관 수리헌금

곽순자, 홍섭분, 장은주, 충은교회, 김득수, 이은성, 박은성, 이인경, 김영숙, 전영숙, 이현호, 고명희, 김경희, 장운정, 김경순, 이순호.